

나귀를 타시고, 구름을 타시고

-스가랴와 다니엘에 나타난 메시아의 오심

By 탈 로빈¹, 사하르 S., 아세르 인트레이터

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이성적인 질문은, 예수아께서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의 왕국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.

물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(마 13:24-33, 막 4:26-32).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고, 그 후에 외관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(눅 17:20-25). 그 나라가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은 신약 이전,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.

하나님 나라의 주된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
2. 왕국 메시지의 열방 전파
3. 메시아 왕국의 지상 건립

이 세 단계는 눅 22: 26, 46-47, 행 1:6-8, 행 26:22-23 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.

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요?

1.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없이는,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.
2. 메시아의 부활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.
3. 평화의 메시지가 열국에 전해지지 않고는, 평화를 이룰 대상이 없습니다.

이 세 단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, 메시아께서 두 번 오셔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은혜와 구원을 위해, 두 번째는 공의와 평화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.

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개념을 이방인들이 지어낸 것이며, 애초의 유대적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.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은 1) 스가랴서에(겸손으로), 그리고 2) 다니엘서에 (영광으로) 나타납니다.

먼저 메시아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습니다.

슥 9:9

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

재림 때엔, 영광과 능력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십니다.

단 7:13

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

이렇게 반론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“ 그것은 당신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. 어떤 랍비도 그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.” 그러나 탈무드도 스가랴와 다니엘의 이 말씀들이 메시아의 두 번 오심을 가리킨다고 인정합니다.

산헤드린 98, A 면

랍비 조슈아는 두 구절을 대립시켰다. “ 보라.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.” 는 말씀과 “ 보라. 네

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.” 는 말씀이다. 만약 그들이 가치가 있다면 그 분은 하늘 구름으로 오실 것이다. 그들이 가치가 없다면, 그 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.

랍비 조슈아²는 위 다니엘과 스가랴의 구절들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존귀하다면,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영광으로 오실 것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메시아께서 스가랴서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여 모순을 해결했습니다.

분명한 것은, 제 2 성전이 무너진 70년 직전의 세대는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(랍비 조슈아의 논리를 따라), 메시아께서는 그 세대에 스가랴서의 기록처럼 올 수 밖에 없으셨을 겁니다.

오늘날 대부분의 랍비들은 자신들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고, 이 구절들은 두 번의 오심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겠지만, 메시아의 한 번의 오심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놓고 탈무드도 스가랴와 다니엘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절이라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. 동시에 두 구절은 서로 다릅니다. 두 구절은 또한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.

신약의 ‘ 새’ 계시는 다니엘과 스가랴의 구절들이 한 번 오실 것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아닌, 한 메시아의 두 번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요 메시아가 둘인 것도 아닙니다.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. 그분의 이름은 예슈아이십니다. 그분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두 번 오십니다.

특별 광고!

예헤스켈³의 아내 오델랴⁴ 인트레이터가 6월 27일 예루살렘 스코푸스 산에 위치한 하다싸 병원에서, 딸 리샤이 탈리야⁵를 출산했습니다. 사랑스럽고 건강하고, 아름다운, 머리가 까맣고 눈은 파란, 3.18kg의 딸입니다. 히브리어로 리샤이는 “ 나를 위한 선물” , 탈리야는 “ 주님의 이슬” 이라는 뜻입니다. 탈리야는 또한 아세르의 모친 나탈리를 기리며 주어진 이름입니다. 리샤이 탈리야는 아세르와 베티 부부의 첫 손주입니다.

MJAA⁶

펜실베이니아 그랜섬⁷에서 열리는 연중 MJAA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이 집회에 예배와 강의, 연합, 번영, 흥미와 교제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.

Joshua²

Yehekel³

Odeliah⁴

Leeshai Talya⁵

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(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)⁶

Grantham⁷